

중국→한국입국 하루에 3만명...국내 공항검역은 제자리

우한폐렴 중국 전역으로 확산...사람간전과 명확해져

국내검역은 우한시 입국자만...감염자 접촉자는 44명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우한폐렴의 사람 간 전파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 한해 발열 등을 확인하는 공항검역 대응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내 우한폐렴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로 확산돼 지역전파가 확실해졌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이 하루에 3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주의(2단계) 수준인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격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오전 우한폐렴 관련 콘퍼런스 콜(음성회의)을 열고 이 같은 감염병 대응방안을 밝혔다.

김근찬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현재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역 대상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하루에 3만여명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우한시 입국자 정보 등을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UR은 의약품 투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병용금지 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의료기관들은 DUR을 통해 우한폐렴이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우한폐렴의 확산에도 공항 검역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배경은 국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매뉴얼을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파란색)과 주의(노란색), 경계(오렌지색), 심각(빨간색) 등 4단계로 나뉜다.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현 상황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발견한 2단계(주의) 수준이다.

공항검역과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3단계(경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하려면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내에서만 체류한 사람이 우한폐렴에 걸려 지역사회 전파 징후로 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의심환자들을 공항 단계에서 파악한 만큼 우한폐렴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2일 열리는 WHO 긴급위원회를 통해 회원국들의 조치사항에 대한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유증상자(의심환자)는 총 11

명이다. 그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 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감시를 해제한 의심환자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루엔자(독감)와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나머

지 의심환자 3명의 감염 여부는 조만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첫 우한폐렴 확진자와 함께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을 이용해 국내로 입국한 인원은 승객과 공항 관계자를 포함해 총 44명이다. 그중 승객이 29명, 승무원 5명, 공항 관계자는 10명이다. 우한폐렴 접촉자

9명은 출국했고, 나머지 35명은 관찰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접촉자들에게 호흡기 증상 같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소는 14일 동안 세 차례 접촉자들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뉴스1



우한폐렴 비상! 열화상카메라 통과하는 탑승객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 판정자가 발생한 가운데 21일 오전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중국 상하이(上海)를 출발해 대구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킹크랩 시연 봤다' 재판부 결론...김경수 측 당혹속 "오해 해소 최선"

드루킹 관계·19대 대선 역할 등 추가심리...3월10일 재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1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2심 재판부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11월9일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다"며 "시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오늘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3시께 김 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해 왔듯이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며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 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

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제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김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관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판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

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우모씨(둘리)의 진술에 대해 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 지사가 김 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심았는지를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3월10일에 열린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도도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